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완공된 고암-담촌철길을 현지에서 료해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완공된 고암-담촌철길을 현지에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현지에서 강종관륙해운상, 김영규 철도성 정치국장을 비롯한 해당 부분과 건설에 동원된 단위의 지휘성원들이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몇해전 수산업발전에 유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힘있게 전진하는 우리 인민에게 불가능이란 없으며 하자고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다 해내고있다고 하시면서 앞으로도 우리의 힘과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에 의거하여 모든것을 우리 식으로 창조하고 발전시켜나간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고암-담촌철길의 완공은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경제건설대진군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는 우리 인민의 혁명열, 투쟁열을 비상히 승화시키고 자립

리한 고암지구와 담촌지구, 천아포일대에 대규모적인 어촌지구를 일떠세우실 웅대한 구상을 펼치시고 그 선행공정으로서 고암-담촌철길을 현대적으로 건설할데 대한 전투적과업을 제시하시였다.

당중앙의 구상과 결심이라면 산도 떠옮기고 바다도 메울 불같은 일념을 안고 펼쳐나선 건설자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은 불리한 조건과 많은 난관을 사생결단의 의지와 자력갱생

의 투쟁기풍으로 뚫고나가며 석전만의 날바다를 횡단하는 해상철길다리를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로 훌륭히 건설함으로써 우리 나라 철길건설력사에서 일찌기 없었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는 자랑스런 위훈을 창조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는 흰갈기물결만이 출렁이던 날바다 한가운데 아득히 뻗어간 철길케도를 바라보시며 정말 훌륭하다고, 마치 미술작

품을 보는것 같다고, 당에서 관심하던 문제가 또 하나 풀렸다고, 대단히 만족하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는 고암과 송전반도를 연결하는 철길이 완공됨으로써 당에서 구상한대로 담촌어촌지구건설을 빨리 다그치고 어촌지구에서 잡은 물고기들을 원만히 수송할수 있는 대통령이 마련되

었다고 하시면서 어렵고 방대한 공사를 자체의 힘으로 훌륭히 해제긴 건설자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의 업적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는 석전만해상철길다리를 설계도 잘하고 시공도 질적으로 하였다고 평가하시면서 볼수록 흐뭇하고 자랑스럽다고, 조국의 동해기슭에 또 하나의 귀중한 창조물이 일떠섰다고 거듭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는 자력자강과

경제의 튼튼한 토대우에서 끊임없이 비약하는 우리 국가의 막강한 주체적 힘을 다시금 확신하게 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는 견인불발의 영웅적투쟁으로 고암-담촌철길을 훌륭히 완공한 건설자들과 일군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 이름으로 감사를 주시였다.

본사기자

